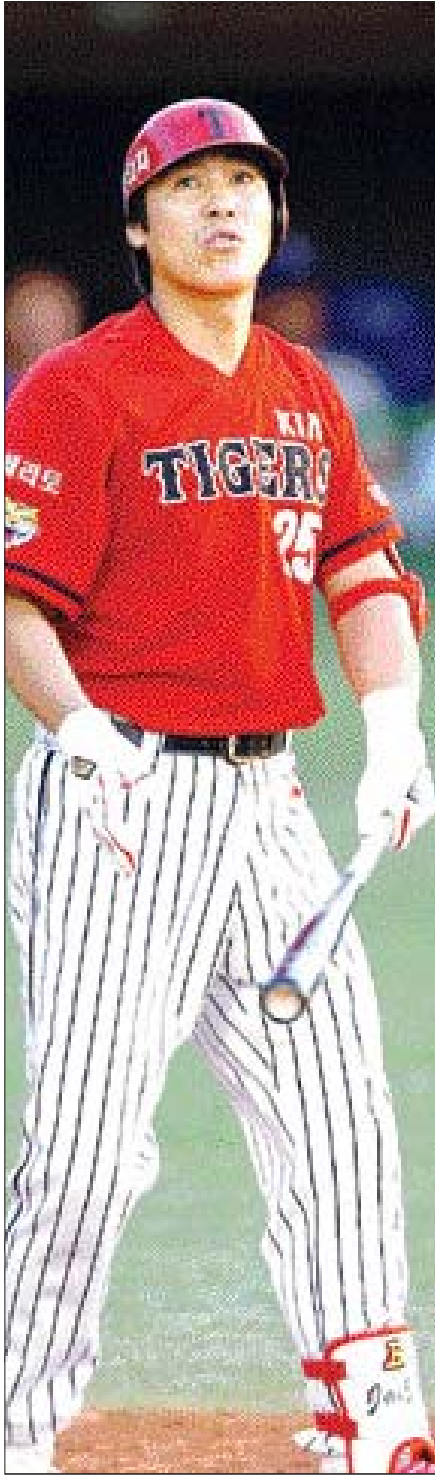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FA 이재주 '길 잃은 호랑이' 되나?

(자유계약선수)

FA(자유계약선수)를 선언한 새 신랑 이재주(34·사진)가 길 잃은 기러기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올 겨울 한국 프로야구에서 FA를 선언한 선수 6명 중 4명은 원 소속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이재주만 단 한번도 협상다운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재주 외에 또 한명의 미계약자인 김동주는 일본이나 두산에서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어 이재주와는 상황이 다르다.

23일 이재주의 원소속팀인 KIA구단에 따르면 우선협상 기간인 지난 11월8~11월 17일 사이에 한 차례도 이재주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주에게 다른 구단을 알아본 뒤 다시 협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재주는 지난 7일 마감된 원 소속팀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과의 FA 협상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재주는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KIA를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을 벌일 수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재주는 지난해 정규리그 126경기 중 115경기에 출장

## 타구단서 아직까지 '러브콜' 없어

### KIA와 계약기간 놓고 '줄다리기'

해 타율 0.284, 13홈런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2007 시즌엔 생애 처음으로 역대(1억원)연봉도 받았다. 하지만 부상 시즌 탓에 겨우 90게임에 나와 타율 0.259, 5홈런, 36타점에 그쳤다. 프로 16년차 베테랑인 이재주는 주전으로 뛸 기간도 얼마 안 돼 통산 성적마저 무의미하다.

100안타를 넘긴 시즌이 2006년이 유일할 정도다. 여기에 만 34살이라는 나이도 걸림돌이다.

이재주의 원 소속 구단인 KIA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 세계적인 연봉 삭감 방침에 따라 '연봉 하향 조정 및 1년 재계

약'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

KIA 관계자는 "이재주의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좋지 않다"며 "1년 계약이 원칙이다. 특히 연봉 대폭 삭감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혼자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KIA측의 강경입장에 따라 당초 올 시즌 받은 역대 연봉을 고수했던 이재주도 한발 물러나 '연봉은 삭감하되 계약기간 2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일 결혼식을 올린 뒤 5박 6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이재주는 이번 주 KIA와 만나 계약 상황을 조율해 볼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재주가 프로야구를 계속하기 위해선 KIA 잔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년 1월 15일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하면 2008 시즌을 쉬어야 한다. 34살의 프로 야구 선수가 1년을 쉬는 것은 곧 은퇴를 의미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올해의 여성수 오초아 남자 NFL 톱 브래디

### AP통신 선정

새로운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 왼쪽)가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여자선수'에 뽑혔다.

AP통신은 23일 기자단 투표 결과 71표를 얻은 오초아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여자선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초아는 안니카 소렌스탐, 캐시 위트워스, 마키 라이트, 베이브 자하리아스와 함께 이 상을 2년 이상 연속 수상한 골퍼 선수가 됐다. 소렌스탐은 2003년부터 3년 연속 AP가 뽑은 '올해의 여자선수'가 됐다.

오초아는 "리스트에 오른 다른 훌륭한 선수들을 보니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 최종 목표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AP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3년 연속 프랑스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우승을 한 쥐스탈 에넬(벨기에)이 17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마린느 선수인 플라 레드틀리프(영국)가 16표, 테니스대 농구 선수인 캔디스 파커(미국)가 14표로 뒤를 이었다.

'올해의 남자선수'에는 미국프로풋볼(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간판인 톰 브래디(미국·사진 오른쪽)가 51표를 얻어 선정됐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33표로 2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29표로 3위를 차지했다.

## 박찬호 출국 이틀 늦춰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로 6년 만에 복귀한 박찬호(34·사진)가 출국을 이틀 늦춰졌다. 박찬호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팀61은 박찬호가 애초 24일 미국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개인사정이 생겨 26일 오후로 출국 일정을 미뤘다고 23일 밝혔다.

박찬호는 출국 당일 오전 11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2층 예매탈룸에서 기자



다주 베로버치 스프링캠프에서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린다.

## 서재응 개인 훈련차 미국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우완 투수 서재응(30·사진)이 개인 훈련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재응은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서재응은 가족이나 동료를 동반하지 않았고 혼자 2주 가량 개인훈련에 전념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한 뒤 내년 1월 9일 캄에서 진행되는 팀 전지훈련에 합류한다.



등 총 15억원에 계약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MLB 소식

### 그림즐리 명단 공개 금지약물 의혹 증폭

미첼보고서에 이어 작년에 큰 논란이 된 '그림즐리 리스트'의 실체가 새삼 공개되며 미국프로야구(MLB) 금지약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23일 잇따라 보도했다.

미국 예리조나주 법원은 21일 연방 검사의 요청에 따라 그림즐리의 조사를 담당했던 국제청(IRS) 특별 수사관 제프 노비츠키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그림즐리 리스트에는 호세 칸세로, 라파엘 팔메이로, 레니 다이스트라 등의 이름이 들어 있다. 그림즐리 리스트는 작년 근육강화제 복용 혐의로 체포된 전 예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투수 제이슨 그림즐리(40)가 수사 도중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동료 선수들 명단이다.

미 수사 당국은 작년 6월 그림즐리의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이 명단을 지위 갖가지 추측을 자아냈다.

작년 10월 그림즐리 리스트에 로저 클레멘스와 앤디 페티트(35·뉴욕 양키스), 미겔 테하다, 제이 기브스, 브라이언 로버츠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LA타임스는 21일 공개된 명단에 클레멘스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22일 신문 1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소사가 이 명단에 들어있다는 의혹은 이번에 새로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22일 역대 홈런 랭킹 5위인 새미 소사(39·텍사스 레인저스)가 이 리스트에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림즐리는 수사과정에서 "2005년 소사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함께 뛰었다. 당시 소사는 '흥분제가 금지돼 검사가 엄격해지면 내년부터 어떻게 뛰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고 진술했다.

소사가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흥분제 암페타민은 2006 시즌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소사는 미첼 보고서에는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소사는 2005 시즌 볼티모어를 끝으로 사실상 은퇴 상태였지만 올해 텍사스로 복귀해 21홈런(92타점)을 기록하며 통산 609홈런을 기록했다.



23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07~2008프로배구 현대와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대한항공 신영수가 현대 수비수 세명의 블로킹을 뚫고 스파이크를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NH농협 V-리그

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대한항공의 상승세를 누르고 3연승 행진을 펼쳤다.

현대캐피탈은 2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홈경기에서 후인정(21득점)과 송인석(17득점)의 활약을 앞세워 보비(34득점)가 분전한 대한항공을 세트점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26-24 21-25 18-25 25-18 15-12)로 물리쳤다.

라이트 박철우가 기용 수순에서 회복하면서 레프트로 이동한 '스커드 미사일' 후인정은 이날 후위공격 4개, 블로킹득점 5개, 서브

## 후인정·송인석 '쌍포 폭발' 현대 3연승... "즐거운 성탄"

득점 2개를 뽑으면서 필필 날랐다. 이로써 지난 두 시즌 챔피언 현대캐피탈은 2라운드 들어 LIG손해보험, 대한항공에 잇따라 설욕전을 펴면서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탔다.

1라운드에서 외국인 공격수 없이 나머지

프로 세팅에 전패를 당했지만 2라운드에서 장신군단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았다. 현대캐피탈은 이날 상무를 이긴 LIG손해보험과 4승3패로 같지만 점수득실률에서 뒤지면서 다시 4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대한항공은 최근 4연승 행진을 마감하면서 5승2패

로 선두 삼성화재(7승)와 간격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무릎 부상이 있는 보비가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지만 막판 보비에 편중된 단조로운 공격으로 승리를 놓쳤다. 또 LIG손해보험은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김요한(12득점)과 이경수(11득점), 엄창섭(10득점)의 고른 활약으로 구상운(10득점)이 활약한 아미초정팀 상무를 3-0(25-15 25-19 25-15)로 완파했다.

신인 최대어 김요한은 이날 64.28%의 높은 성공률과 블로킹득점 3개를 곁들이면서 프로 데뷔 첫 득점을 기록했다.

LIG손해보험은 최근 2연패에서 탈출하면서 3위로 올라섰고 상무는 7연패에 빠지면서 첫 승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 올해의 스포츠 뉴스 '불명예 홈런왕' 본즈

### AP통신 선정

미국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 뉴스 중 미국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고도 약물 복용설에 휘말려 영광과 굴욕을 동시에 맛본 '불명예 홈런왕' 배리 본즈(43·사진)가 으뜸을 차지했다. 본즈는 22일 AP통신 자사 스포츠 기자 및 방송 관계자들로 구성된 투표인단으로부터 1위표 146표 중 100표를 얻는 등 총 1천352표를 획득, 올해 쏟아진 스포츠뉴스 가운데 전체 1위에 올랐다.

그는 8월8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벌어진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756번째 홈런을 폭발시키며 헵크 아론의 통산 최다 홈런(755개)을 뛰어 넘는 신기록을 수립했으나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계 복용설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상처 뿐인 영광'만 안았다. 게다가 12월에는 약물 사용과 관련한 2001년 연방대법원에서 위증 및 재판 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법정에 서는 등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다.



1993년부터 올해까지 15년을 뛰어넘은 샌프란시스코와 결별한 본즈는 아직 새 동지를 찾지 못해 더욱 우울하다.

**골프·랜드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리 회원권**

골프 장	시세/매입	골프 장	시세/매입
평 수	3,500	주 임대	1,800
남 권	4,200	주 본	2,400
합계	9900	도	3,000

상담문의 (062)351-0095